

2025년

추석 가정 예배



www.junahim.kr
02-2237-5009

주내힘교회

추석 가정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인도자

오늘은 풍성한 나눔과 은혜를 누리는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내임교회

559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잊고 (통일 305)

보통으로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 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 고 동기를 사랑에 둉쳐있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 라 임마누엘에 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 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가족 중 한 사람
성경말씀 시편 136편 25-26절 (구약 902쪽) 맡은이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나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맡은이

말씀나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한 해 농사의 수확으로 무르익은 곡식과 과일들로 풍성한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밥상 위에 놓인 맛있는 음식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풍성한 밥상을 보며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은 단순히 상 위에 놓인 맛있는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늘이 있기까지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 모두의 결과물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흘린 땀, 회사에서 보낸 긴 시간, 자녀를 위해 애쓴 눈물과 같은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단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고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 밭을 갈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추석의 풍성함은 결국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노력한 결과로, 나의 수고로 맺은 결실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공과 결실은 나의 공로가 되고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됩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면 감사가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며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내느라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오늘 온 가족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밥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 감사가 풍성히 넘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의 풍성함은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에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모든 육체의 먹을 것을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주림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의 삶 속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301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 460)

보통으로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은 헤라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3.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는 루말 하랴
 불듯 이주부의 시는 주께 말겨 주변을 날해 졸도 멀하잖네
 끝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사랑없는 주거리에 손에 나험한 산길에 해롭고 향집에 들아 가
 나를 위해에 비하 신고 향집에 들아
 모든 일을 주안에 서형통하 게하시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영송원 하며 톡톡 살리라
 아버지의 품안에 서고 찬영송원 하며 톡톡 살리라

주기도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